

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9. 08. 05. ~ 08. 25.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은 Canada line이라는 지하철 노선에서 49 th Avenue역에서 약10분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위치에 있습니다. 역 앞에 49번 버스를 타면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제가 거주한 홈스테이 집에서는 통학하는 데는 약50분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집이 지하철 역과 비교적 가깝고 아침 통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2분꼴로 오기 때문에 통학하기 수월했습니다. 학교는 생각했던 거 보다 넓으며 시설들이 굉장히 깔끔하며 조경도 잘 꾸며져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녔습니다.
수업	수업은 대체적으로 스피킹과 라이팅을 중점하여 이루어졌으며, 약간 영어를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캐나다 현지인들의 말을 배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여형 수업이 많아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선생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필드트립	첫 주에는 밴쿠버 시티 관광을 하였는데, 우리 가이드가 정말 별로라서 계속 걷기만 하고 얻은 내용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카약을 타러갔는데 생각보다 옷이 젖지 않았고, 정말 자연경관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무척이나 좋아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밴쿠버 박물관과 아쿠아리움도 갔는데 전체를 다 꼼꼼하게 둘러보기에는 2시간정도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쿠아리움에는 쇼하는 시간들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쇼정보를 얻어서 쇼 보러 다니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휘슬러 트립은 정말 재미있었지만 그날의 날씨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날씨가 흐린 경우 산 정상에서 예쁜 전경을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우 춥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전혀 습하지 않고 굉장히 쾌적한 날씨였으며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날이 많다. 종종 아침에 15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며, 또 낮에는 햇빛이 강렬하게 내려 쬐기도 한다. 선크림을 챙기고 선크림도 바르는 것을 추천한다. 종종 겉옷이 필요한 날씨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
안전	저녁 10시 이후가 되면 굉장히 어두워 집니다. 한국에 비해서 빌딩이 적으며 그리고 가로수 길에 가로등의 개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시 이후로 돌아다니는 것을 약간 주의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특히 water front hasting street - 노숙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거리)
숙소	홈스테이 가족분들이 너무 잘해주셨다. 처음 출국하기 전에 먼저 주의할 사항과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리고 중국계 캐나다 사람이여서 정서도 잘 맞았고, 다른 홈스테이 하는 사람들도 친절해서 큰 무리없이 숙소에서 적응도 잘하고 잘 쉬다온 거 같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0) 기타 (0) 외부식당과 홈스테이 가정에서 주는 음식을 가장 많이 먹은 거 같다. 외부식당을 가는 경우 팁과 세금을 같이 줘야 되서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식당마다 해피아워라는 것이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가면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 또한 홈스테이 식사도 내 입맛에 적절하게 잘 맞아서 저녁시간에 맞춰 들어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였다.
교통	지하철이 굉장히 빨리 온다. 버스는 종긴 하지만 연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며 한국처럼 10분이내에 오는 버스가 거의 없다. 통근시간이 아닌 이상 20분에 1대 오는 콜로 시간표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구글지도 참고하는 것 제일 좋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약100만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식비	25만원	저녁식사&주류
기념품 및 의류	55만원	쇼핑몰, 옷, 기념품 등
관광	20만원	놀이공원, 캐필라노 브릿지 등
합계	1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한국에 비해 선선한 날씨이며 굉장히 햇빛이 강렬하다. 굉장히 많이 걸어다니다기 때문에 휴족시간 같은 다리의 피로를 완화시키는 제품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물갈이를 하는 사람이라면 약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하며, 그리고 발진이 일어날 수 도있기 때문에 피부와 관련된 약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지에서도 웬만한 약들은 살 수 있고, 그리고 효능이 좋은 약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약품을 챙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 때는 최대한 짐을 줄여서 가세요!! 올 때는 짐이 엄청 불어서 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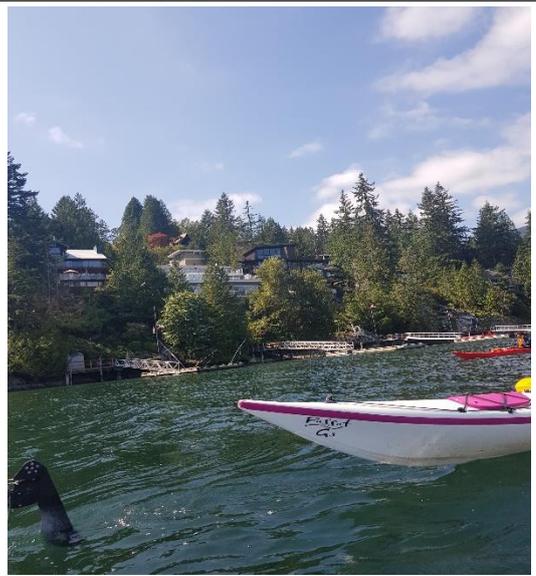
너무 좋은 환경, 날씨였으며, 좋은 지인들과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서 무척이나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외국이라서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들도 많았고 외국이라서 한국에서는 하지 않을 실수들도 여럿 했던거 같습니다. 어학연수라고 단순히 영어 실력을 발전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국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생활방식을 배우면서 우리 한국인에게 없지만 배워야 할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학연수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 다시 캐나다로 여행을 가거나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는

생각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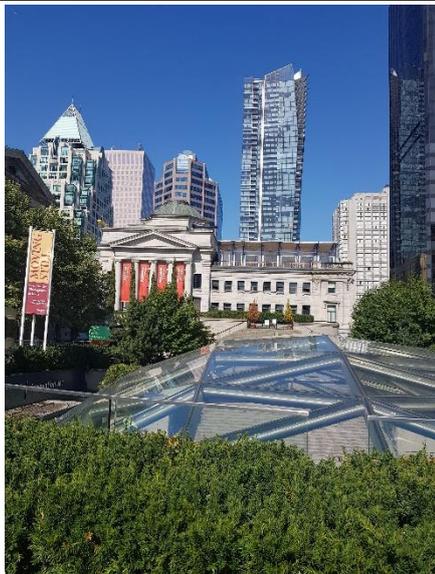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휘슬러 트립-곤돌라안에서 찍은 사진



카약킹 하러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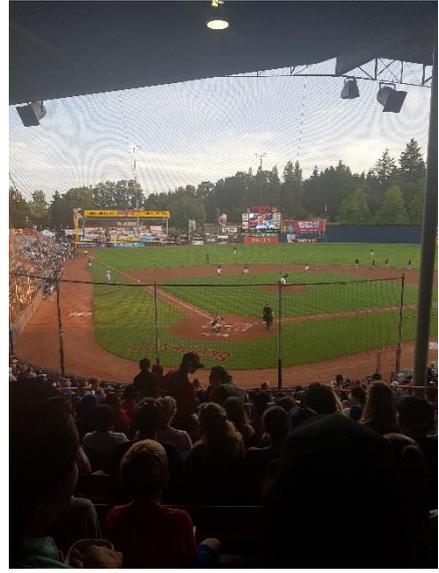
아트갤러리



버스안에서 찍은 풍경



그랜드빌 아일랜드 마켓



야구장에서 야구관람